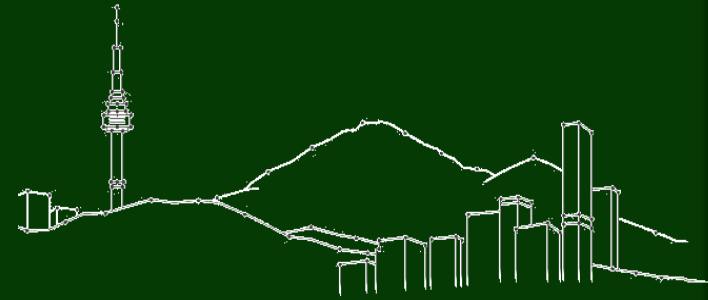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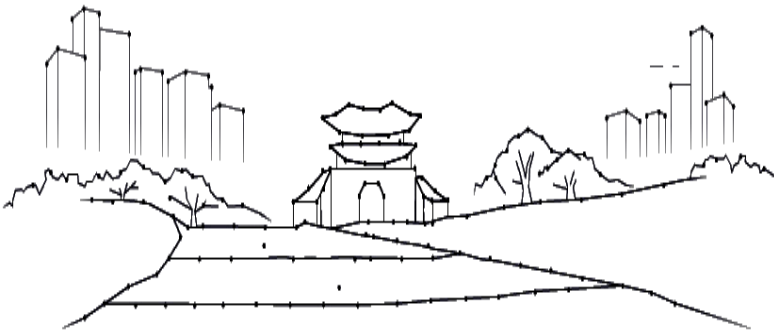


희망서울
함께 만드는 서울, 함께 누리는 서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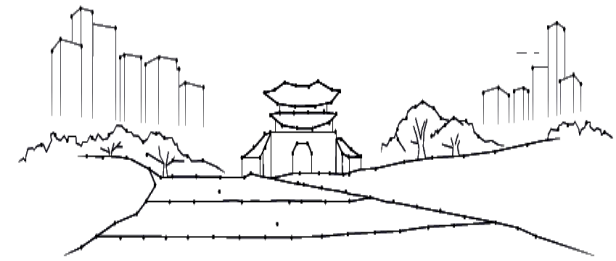


서울시 사회적경제 종합지원 사업

2012. 7. 9 (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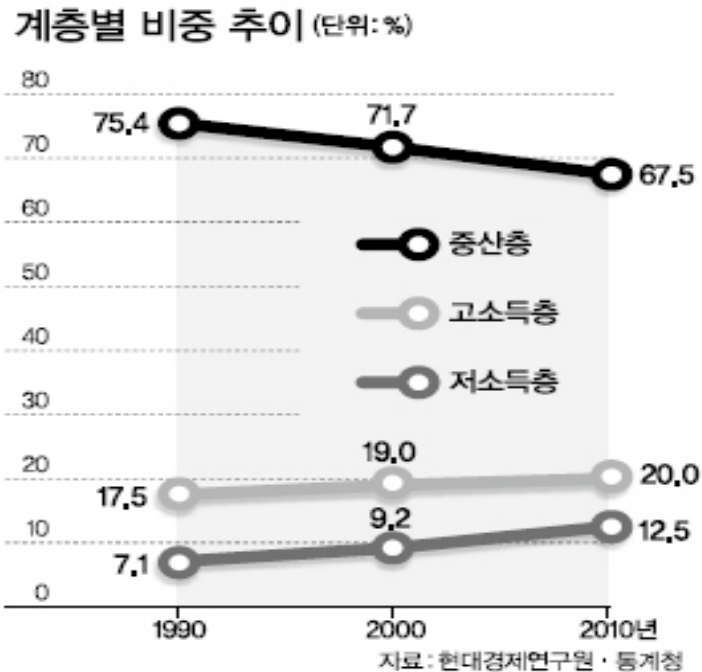


경 제 진 흥 실



1. 추진 배경

경제의 양적 성장만을 중요시했던 우리사회는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


청년실업, 공동체 해체, 비정규직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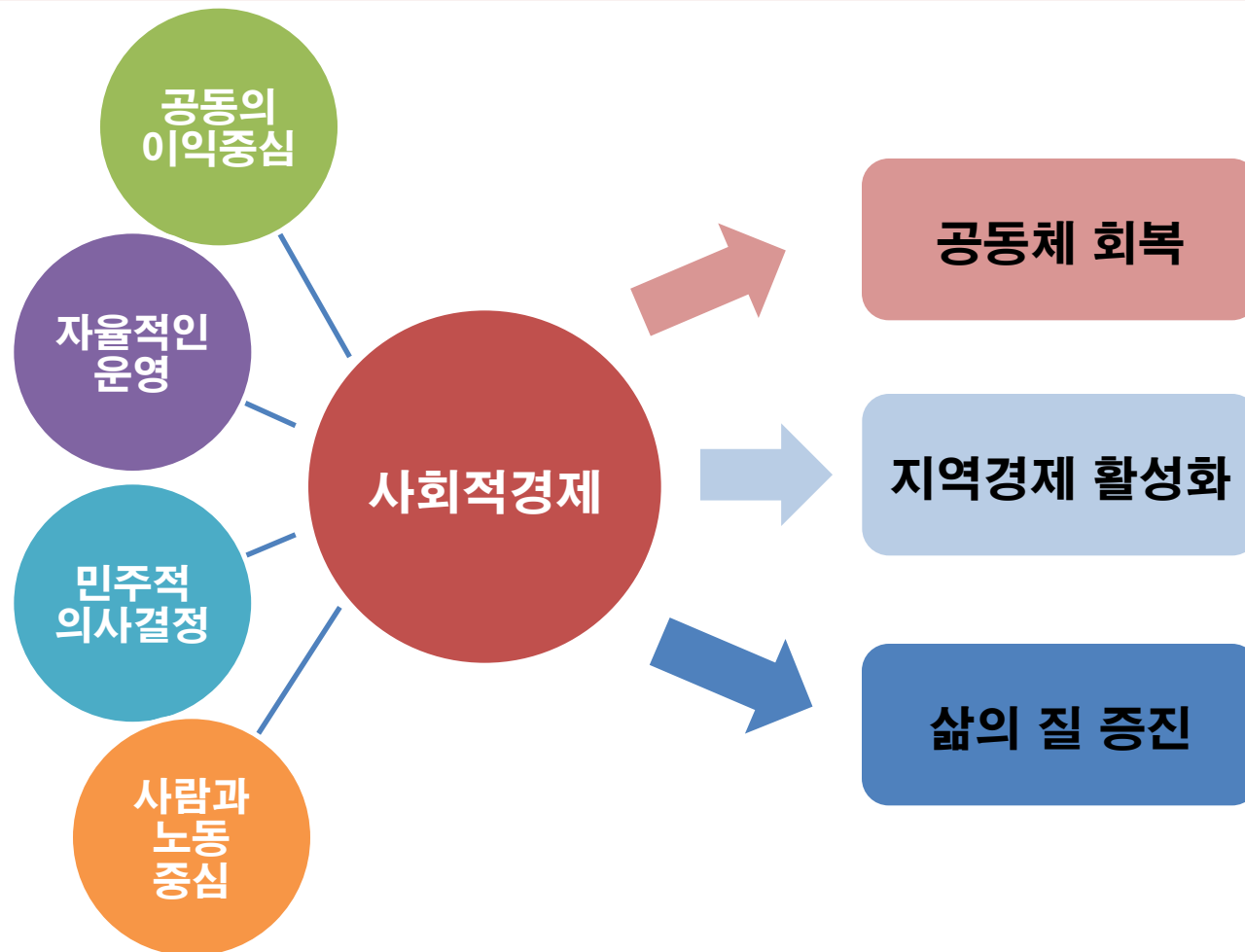


높은 청년실업률 8.3%(2011 통계청)



서울시 비정규직 33.7%(2011 통계청)

지금 이 바로, 공동체 회복을 통한 사회통합으로서
호혜와 협력의 사회적경제가 필요한 때입니다.



2. 추진 방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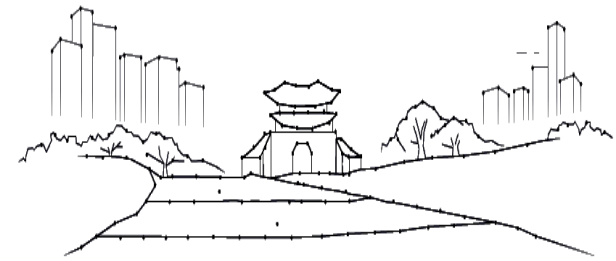
‘행정주도’ 에서 시민사회 중심의 ‘민관 거버넌스 체계’ 구축



**‘인건비 지원’ 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
‘생태계 조성’ 으로 패러다임 전환**



**사회적경제주체의 자생적 역량 강화를 위한 성장단계별
맞춤형 종합지원 체계 구축**



3. 추진 실적

예비 사회적기업 지정, 지원을 통한 저변 확대

● 인증 사회적기업보다 완화된 요건의 서울형사회적기업 지정 : 411개

계	'10년1차	'10년2차	'10년3차	'11년1차	'11년2차	'11년3차
411	110	85	57	57	68	34

※ 서울형사회적기업 53개 기업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

●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

- ✓ 인건비(382억), 사업개발비(23억), 자금융자(14억) 등 재정지원
- ✓ CEO아카데미(284명), 홍보·회계·노무등 경영컨설팅(3,338회)등 경영지원
- ✓ 1부서1사회적기업 결연(576개 부서 351개 기업) 결연, 공공구매 활성화
- ✓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운영, 홍보총람·구매가이드 배포를 통한 홍보,마케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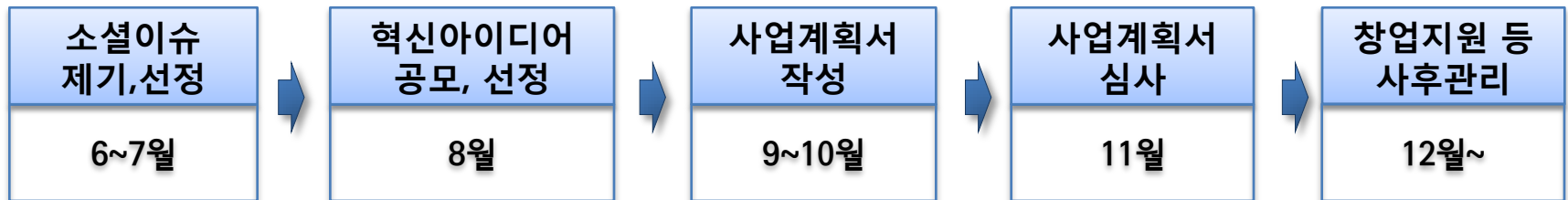
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 구축

-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경청워크숍('11.11월)
- 사회적경제 민관 합동실무 T/F 구성,운영 ('12.2월~3월)
 - ✓ 사회적기업분과, 마을기업분과 각각 주요 agenda별 총10회 개최
- 협동조합 관련 전문가 및 관련단체 종사자 간담회(총5회)
-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한 현장의견 청취
 - ✓ 사회적기업,마을기업 대표, 중간지원기관 등 150여명('12.3월)
 - ✓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의견청취('12.3월)

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회적기업 발굴

● 도전적인 청장년층 대상 ‘사회적경제 경진대회’ 추진

- ✓ 단순 공모방식 지양, 창업 쏠 단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추진
- ✓ 우수 10개팀 창업자금지원(1천만원), 인큐베이팅 센터 입주, 해외연수 기회 제공



광역-기초간 체계적인 중간지원시스템 구축

● 광역단위 사회적기업개발센터 설치(12월 개소)

- ✓ 위 치 : 은평구 녹번동 5번지 (舊 질병관리본부 내)
- ✓ 주요 기능(안)
 -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허브 기능
 -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조사, 사업분석 및 평가
 -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및 전문가 발굴·육성

●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개발 프로젝트 추진

- ✓ 지역맞춤형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단 5개 선정(6월)
 - 지역자원조사, 기업발굴 인큐베이팅, 성장지원 사업 등 추진
 - 민간기관+자치구+교육기관 연계 다양한 방식의 시범사업 추진
- ✓ '12년은 시범사업(1년간 3억) 성과 평가 후 향후 확대 추진

● 위치도



사회적기업 공공부문 소비시장 확대

●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목표 부여 및 달성체계 구축(4월)

- ✓ 시,자치구,투자·출연기관별 우선구매 목표액 부여
- ✓ '11년 116억 → '12년 500억원



● 사회적기업 전용 온라인 쇼핑몰 구축

- ✓ 5백만원 이하 소모성 물품,서비스 구매 지원 및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
- ✓ 유통전문 사회적기업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구축,운영(7월)

●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자율 정화 분위기 조성

- ✓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체 평가 및 지도점검(사회적목적 실현, 기업 경영현황)(5월)
- ✓ 사회적기업 참여 근로자 교육 실시(5월) : 1,920명

지역사회 중심의 협력적 생태계 기반 구축

● 마을지원센터와 연계한 마을공동체기업 육성프로세스 구축

- ✓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, 인큐베이터 훈련 및 매뉴얼, 평가지표 개발(4~7월)
- ✓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기업 25개 발굴, 육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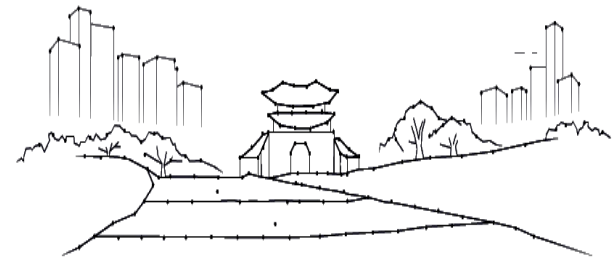


● ‘2012 세계협동조합의 해 협동조합난장한마당’ 추진(7.6~8)

- ✓ 협동조합,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 참여
- ✓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인식 확산 및 Boom-Up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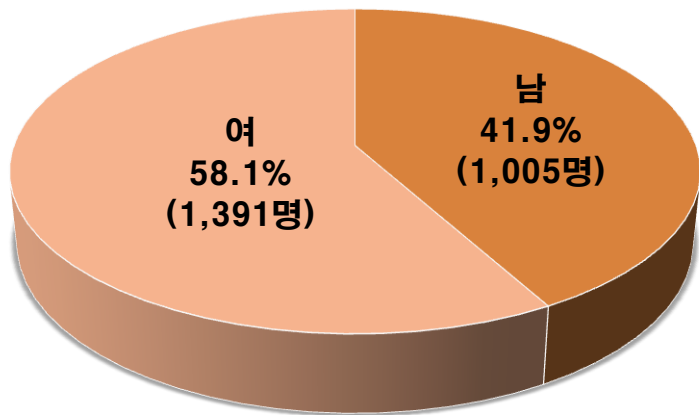
● ‘협동조합도시 서울’ 을 위한 협동조합 육성 지원체계 구축

- ✓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인식 확산 및 Boom-Up 조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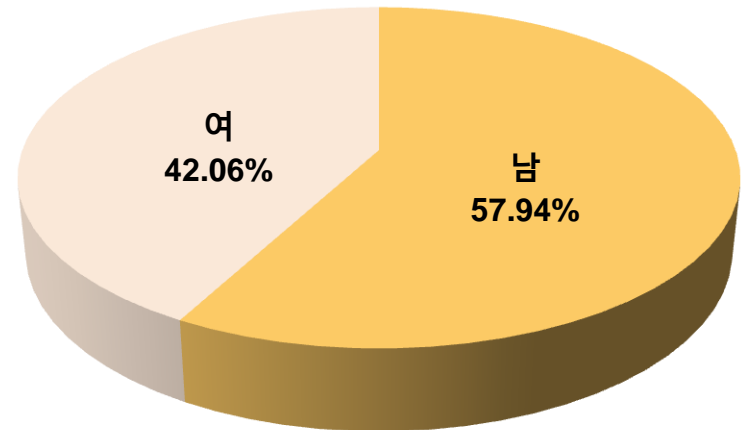
4.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여성친화성

서울형 사회적기업 참여근로자 남녀 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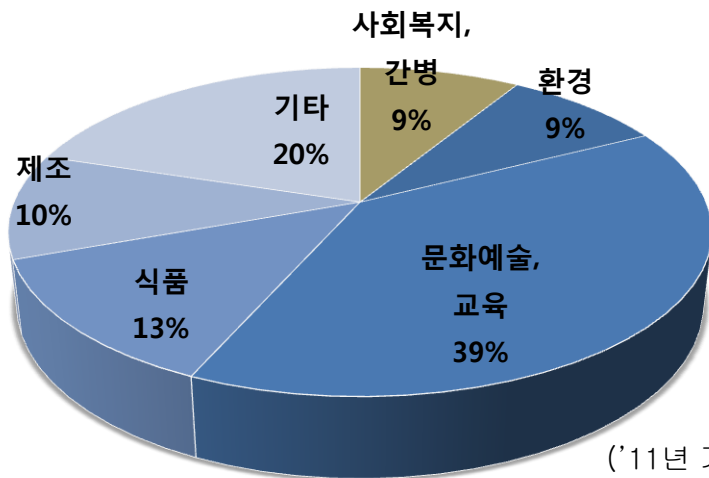
(’11년 기준)

전체 취업자의 남녀 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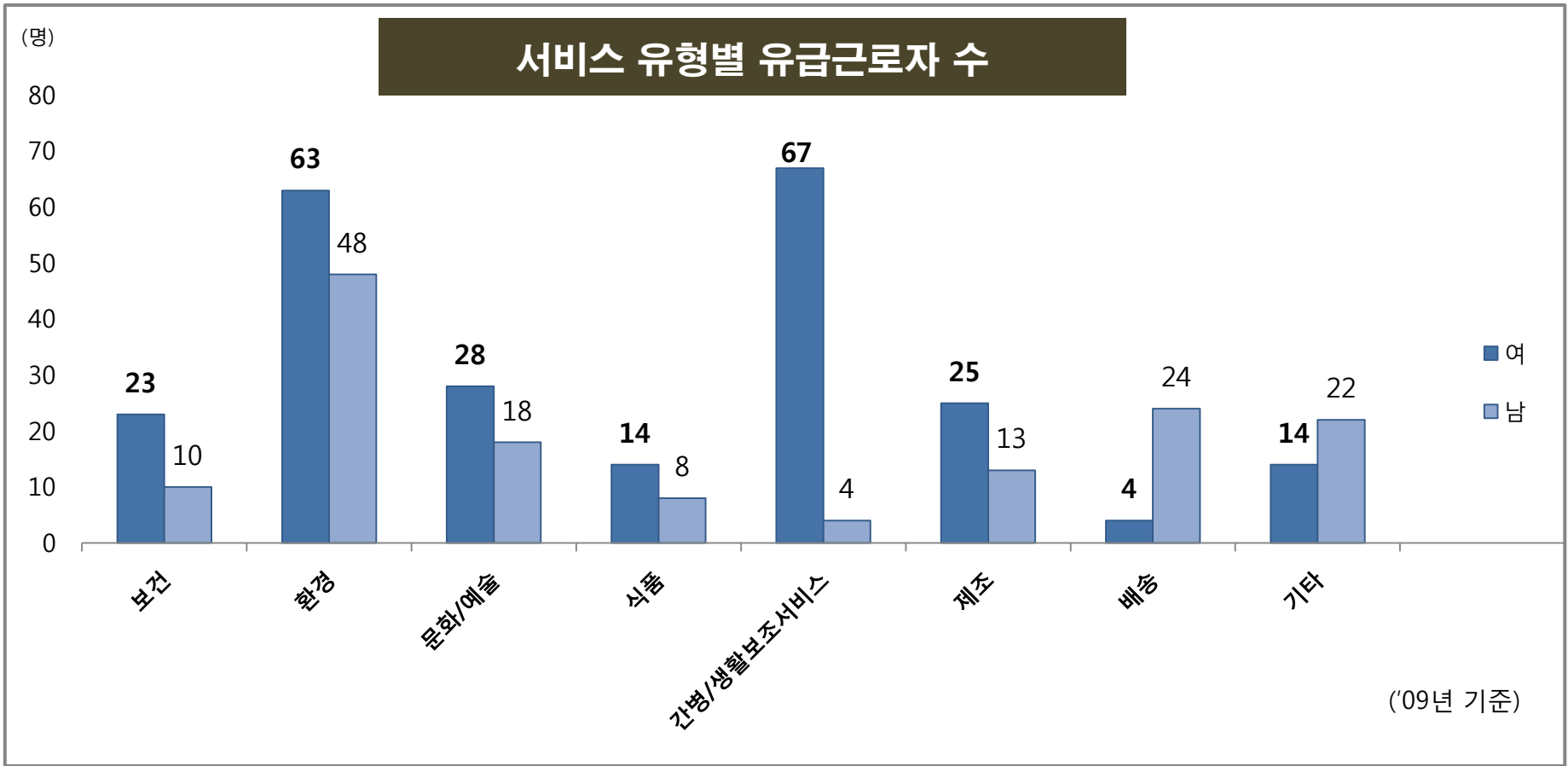
(’11년 기준)

(예비) 사회적기업 업종별 현황



(’11년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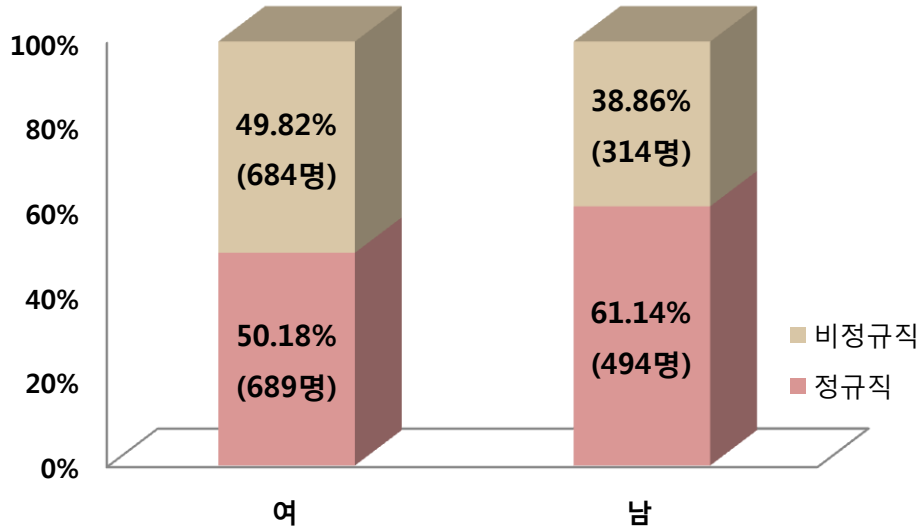
- 사회적기업의 여성 참여율은 58.1%로 전체 취업자 중 여성참여율보다 16% 높음
- 문화예술,교육(39%) 분야의 사회적기업이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기타>식품>제조>사회복지·간병, 환경 분야 등에서 활동 중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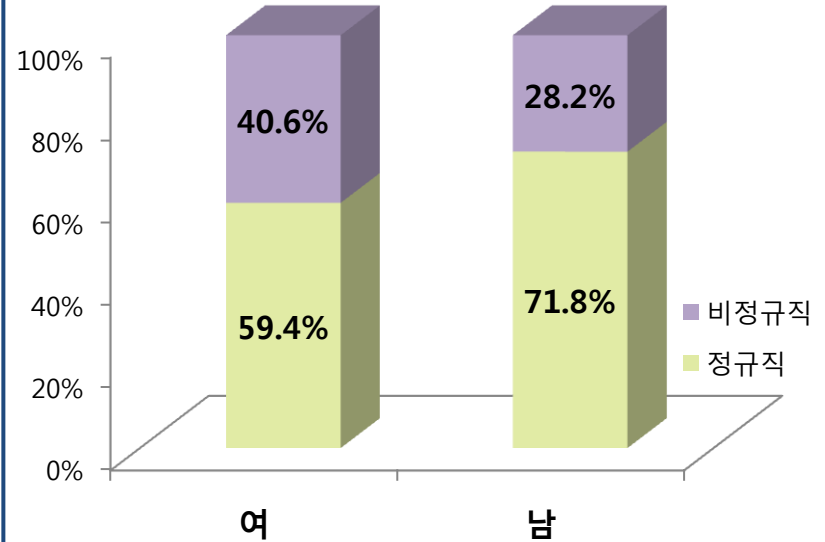
-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도 성별 직종 분리 현상이 나타남.
- ➔ 여성 일자리의 저임금, 고용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음.

※ 출처 :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여성친화지수분석(2009/이성은)

사회적기업의 성별 정규직/비정규직 비율



경제활동인구의 성별 정규직/비정규직 비율



- 사회적기업의 남성 정규직 비율보다 낮은 여성 정규직 비율(11% ↓)
 - ‘경제활동인구조사’의 여성 정규직 비율보다 낮은 정규직 비율(9% ↓)
- ➔ 사회적기업의 여성 고용 형태의 불안정

5. 시사점

가능성

- ✓ 양성평등, 민주적 의사결정, 호혜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운영 원리
- ✓ 여성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인 기여 가능

개선점

- ✓ 사회적기업 근로자, 수혜자들의 성별 분리 통계 관리 미흡
- ✓ 성별 직종분리문제, 낮은 정규직 비율로 일자리의 질 저하 우려

6. 여성친화적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방안



감사합니다.

서울시 경제진흥실